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Assistive Technology
2016. Vol. 10, No. 2, 119-126
http://resko.jams.or.kr
http://dx.doi.org/10.21288/resko.2016.10.2.119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안성아, 염동문*
S. A. Ahn, D. M. Yeum

요 약

본 연구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2014년 발표한 제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2,000명에 대한 유효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활동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은 34%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Health-related factors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on life satisfaction. For this study, the data of the 2014 1st Korea Panel Study of work's compensation Insurance. From all the subjects study, 2000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who were fit for the study purpose were chosen and analysis were implemented. Self efficacy, self esteem, old age preparations of psychological-social factors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Economic activity, socioeconomic status of economic factors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the help of others of Health-related factors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The model explained 34% of the valuables.

Keyword :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Psychological-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Health-related factors

1.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대신에 다양한 재해로 인해 인명손실, 경제적 문제, 가족과 사회불안정 문제 등의 위험을 직면해야하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갑자기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1].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근로의 비율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산업재해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2],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

접 수 일 : 2016.01.18
심사완료일 : 2016.03.09
게재확정일 : 2016.05.31
* 안성아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sa8269@hanmail.net (주저자)
염동문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ksltv@hanmail.net (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한국국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레스를 겪게 하는 등 삶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3].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상관련 제도를 통해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4] 여전히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기능 손상은 이동 및 활동의 제한, 재활에 대한 스트레스, 외모의 변화 등을 통해 산재환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일으킬 뿐 아니라, 외상이 장애로 남을 경우 많은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된다[5-7].

산업재해환자의 신체기능 상실은 능력 및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직장복귀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고, 직업복귀를 못한 산재장애인은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심화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산재로 인해 사회적 역할 상실과 함께 두려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10]. Medley[11]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적절한 행동, 태도, 그리고 기대수준이 형성되며, 이러한 기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활만족도는 인간의 안녕에 대해 긍정적이며 다양한 측면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생활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모든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증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두고 있다[12-13].

산재 후 근로자들은 신체기능 및 건강상실, 노동력 상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 역할 상실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낮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재활과 함께 신체부위 및 기능 손상에 의해 겪게 되는 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건강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산업현장으로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모색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적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를,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활동상태, 총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근로기간을, 건강관련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유무, 요양기간, 장애유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정도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의 수준을 파악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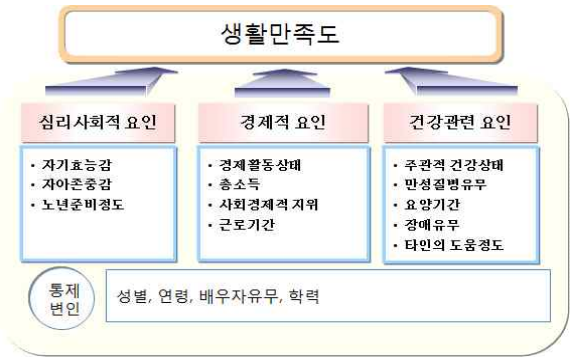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자료수집 및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14].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보험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구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층화계통추출에 의해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 2,000명을 선정하여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건강, 삶의 질, 소득, 가구현황 등에 관하여 5년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결과를 2014년 발표한 보고서내용이다.

2.2.1 생활만족도

준거변인인 생활만족은 산재보험패널 조사표에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6개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1=매우 만족, 5=매우 불만족)로 구성되어 있어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이들 6가지 하위차원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0.806으로 나타났다.

2.2.2 심리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를 선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산재보험패널 조사표에 제시된 Shere, Maddux 및 Jacobs와 Rogers 등이 개발한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2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제시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도록 역문항을 변경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제시된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대체로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도록 역문항을 변경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노년준비정도는 5문항(건강유지, 노후자금, 사회참여, 취미여가활동, 직업훈련)의 4점 척도(1=매우 열심히 준비한다, 4=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를 역문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년준비가 높아지도록 변경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2.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경제활동상태, 총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근로기간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경제활동상태는 "0=미취업, 1=취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총소득은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년간 근로소득과 근로 외 소득의 합에 자연로그변환을 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1=하층, 2=중하층, 3=중상층, 4=상층"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2.2.4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유무, 요양기간, 장애유무, 타인의 도움정도를 선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좋은 편이다, 4=매우 좋다"로 나누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정도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1=전혀 필요없다, 2=필요 없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로 구분하였다. 만성질병유무와 장애유무는 "0=무, 1=유"로 구분하였다.

2.2.5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0=여자, 1=남자"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생물학적 연수로 측정하였다. 배우자유무는 "0=무, 1=유"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이상"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아지게 설정하였다.

2.3 분석방법

연구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SPSS 20.0을 이용하여 변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분석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하였으며,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il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유의도 검증은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종속변인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종속변인인 일상생활만족도의 왜도가 -.155, 첨도가 절대값 .387로 나타나 Kline[21]이 제시한 왜도(±3)와 첨도(±10)의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 한 결과 공차한계는 .521~.971, VIF는 1.030~1.92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	1,686	84.3
	여	314	15.7
만성질병 유무	무	1,668	83.4
	유	332	16.6
최종학력	무학	73	3.7
	초등학교졸업	336	16.8
	중학교졸업	378	18.9
	고등학교졸업	906	45.3
	대학교이상	307	15.4
배우자 유무	무	591	29.6
	유	1,409	70.5
장애유무	무	350	17.5
	유	1,650	82.5
경제활동 상태	미취업	588	29.4
	취업	1,412	70.6
일상생활만족도	최소=1.33, 최대=5, M=3.26, sd=.504		
연령	최소=17, 최대=76, M=49.1, sd=11.108		
자기효능감	최소=1.65, 최대=5, M=3.43, sd=.471		
자아존중감	최소=1.30, 최대=4, M=2.96, sd=.442		
노년준비정도	최소=1, 최대=4, M=2.13, sd=.557		
ln년소득	최소=2.83, 최대=9.62, M=7.88, sd=.68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최소=1, 최대=3, M=1.6, sd=.579		
주관적 건강상태	최소=1, 최대=4, M=2.53, sd=.682		
일상생활 타인도움필요정도	최소=1, 최대=4, M=1.76, sd=.762		

성별은 남자 1,686명(84.3%), 여자 314명(15.7%)로 남자가 많았으며, 만성질병유무는 '무' 1,668명(83.4%), '유' 332명(16.6%)로 '무'가 많았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906명(45.3%)으로 많았으며, 배우자 유무는 '유'는 1,409명(70.5%), '무' 591명(29.6%)로 "유"가 많았으며, 장애유무는 '유' 1,650명(82.5%), '무' 350명(17.5%)였으며, 경제활동상태는 취업 1,412명(70.6%), 미취업은 588명(29.4%)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평균 3.26점, 연령은 평균 49.1세였으며, 자기효능감은 평균 3.43점, 자아존중감은 2.96점으로 나타났다. 노년준비정도는 평균 2.13점이었고, ln년소득은 7.88점이었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1.6점, 주관적 건강상태는 2.53점이었고, 일상생활 타인 도움필요정도는 1.76점이었다.

3.2 모형분석

3.2.1 상관관계분석

가설 검정 전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수들 간에 0.05,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r=10.252~0.649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가 r=0.649로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는 자기효능감(r=0.392), 자아존중감(r=0.423), 노년준비정도(r=0.366), 경제활동상태(r=0.282), ln년 소득총계(r=0.075), 사회경제

표 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결과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the main variables

변수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노년 준비 정도	경제 활동 상태	ln년 소득 총계	사회 경제적 지위	근로 기간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 질병 유무	요양 기간	장해 유무	타인 도움 정도	생활 만족도
자기 효능감	1												
자아 존중감	.649**	1											
노년준비 정도	.292**	.293**	1										
경제활동 상태	.208**	.275**	.184**	1									
ln년소득 총계	.088**	.061**	.109**	.077**	1								
사회경제적 지위	.243**	.289**	.420**	.192**	.164**	1							
근로기간	.124**	.115**	.212**	.196**	.133**	.257**	1						
주관적 건강상태	.287**	.340**	.270**	.340**	-.033	.251**	.143**	1					
만성질병 유무	-.099**	-.108**	-.060**	-.119**	-.025	-.081**	-.041	-.197**	1				
요양기간	-.140**	-.192**	-.059**	-.268**	.251**	-.067**	-.028	-.320**	.047*	1			
장해유무	-.082**	-.078**	-.070**	-.104**	.302**	-.043	-.006	-.171**	.011	.343**	1		
타인도움 정도	-.228**	-.268**	-.049*	-.280**	.073**	-.088**	-.060**	-.415**	.090**	.338**	.139**	1	
생활 만족도	.392**	.423**	.366**	.282**	.075**	.393**	.243**	.325**	-.098**	-.145**	-.080**	-.252**	1

*P<.05, **P<.01

적 지위(r=0.393), 근로기간(r=0.243), 주관적 건강상태(r=0.325), 만성질병유무(r=-0.098), 요양기간(r=-0.145), 장해유무(r=-0.080), 타인의 도움정도(r=-0.252)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년준비정도가 높을수록, 취업되어 있을수록, 년 소득액이 많을수록, 근로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성질병이 없고,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장해가 없고, 타인의 도움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2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모델 2에서는 경제적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으며, 모델 3은 건강관련 요인을 투입하여 유의한 설명변량의 증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VIF(분산팽창계수)값이 세 가지 모델에서 모두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 1에서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하였고,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를 입력한 결과 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04.552, p<.001), 연령(t=-2.712, p<.01), 배우자유무(t=5.513, p<.001), 자기효능감(t=5.842, p<.001), 자아존중감(t=9.006, p<.001), 노년준비정도(t=11.194, p<.001)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26.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경제활동상태, ln년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근로기간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6.054, p<.001), 배우자유무(t=2.781, p<.01), 자기효능감(t=5.764, p<.001), 자아존중감(t=7.283, p<.001), 노년준비정도(t=6.805, p<.001), 경제활동상태(t=5.714, p<.001), 사회경제적 지위(t=8.606, p<.001), 근로기간(t=4.820, p<.001)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을 투입한 이 모델은 모델1보다 조금 높은 32%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3은 건강관련 요인을 입력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63.551%, p<.001), 배우자유무(t=3.093, p<.01), 자기효능감(t=5.259, p<.001), 자

표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Factors influencing of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변수		모델 1				모델2				모델3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통제변인	성별	-.027	.027	-.020	-1.009	-.005	.028	-.004	-.181	-.001	.027	-.001	-.034
	연령	-.003	.001	-.068	-2.712**	-.001	.001	-.025	-1.019	.000	.001	-.010	-.417
	배우자유무	.126	.023	.114	5.513***	.063	.023	.057	2.781**	.070	.022	.063	3.093**
	학력	.013	.012	.027	1.113	.000	.011	.000	-.019	-.003	.011	-.007	-.281
심리사회적요인	자기효능감	.161	.028	.150	5.842***	.153	.027	.143	5.764***	.139	.026	.130	5.259***
	자아존중감	.265	.029	.232	9.066***	.210	.029	.184	7.283***	.177	.029	.155	6.137***
	노년준비정도	.209	.019	.231	11.194***	.131	.019	.145	6.805***	.130	.019	.143	6.735***
경제적요인	경제활동상태					.126	.022	.114	5.714***	.083	.023	.075	3.599***
	ln년소득					-.017	.015	-.023	-1.162	-.004	.016	-.006	-.286
	사회경제적지위					.162	.019	.187	8.606***	.156	.019	.180	8.349***
	근로기간					.011	.002	.096	4.820***	.011	.002	.093	4.751***
건간관련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49	.017	.067	2.950**
	만성질병유무									-.016	.026	-.012	-.616
	요양기간									.002	.009	.006	.269
	장애유무									-.013	.027	-.009	-.465
	타인의 도움정도									-.069	.014	-.104	-4.927***
		R2=.269 F=104.552***				R2=.320 F=86.054***				R2=.340 F=63.551***			

**P<.01, ***P<.001

아존중감(t=6.137, p<.001), 노년준비정도(t=6.735, p<.001), 경제활동상태(t=3.599, p<.001), 사회경제적 지위(t=8.349, p<.001), 근로기간(t=4.751, p<.001), 주관적 건강상태(t=2.950, p<.01), 타인의 도움정도(t=-4.927, p<.001)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있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타인의 도움정도가 적을수록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적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연희[18]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하춘광과 김효순의 연구[19]에서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한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고민석과 김동주[10]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은 달랐으나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질환의 후유증, 실직, 가족 및 동료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것을 예상해 볼 때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근로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민석과 김동주[10] 연구에서 경제활동상태와 일상생활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전보영 등 [15]은 산재장애인 연구에서 미취업자에 비해 현재 취업상태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지양[17]의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을수록, 전문직이고, 직무통제감이 많을수록, 직장 내 가족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박혜경[4]의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월평균가구소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소득보다는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직업유지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건강관련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타인의 도움정도가 적을수록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5-16]와 일치하였다. 박혜경[4]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는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심지양[17]의 연구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을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고, 송진영[20]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적게 받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타인의 도움 필요도가 높을수록 장애상태가 심하고 사회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산업재해근로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심리사회적 요인, 경제적요인, 건강관련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 있다.

첫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들의 스스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장에서 역량강화프로그램, 자기개발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년준비프로그램으로 노후금전관리. 사회활동, 취미여가활동, 직업훈련 등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산업장에 복귀했을 때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재활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향상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지위, 근로기간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직업재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무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탄력제 근무, 재택근무 등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별 건강상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의 재활센터, 지역사회 재활센터 등에서 건강관련 강좌, 자조모임 등을 통해 주위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정도, 산재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Department of Labor, Working paper, 2004.

[2] S. H. Moon,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industrial accidents”, Social Welfare policy, vol. 20, pp 155-169. 2004.

[3] T. S. Kwon, “A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 Accident Victims after Termination of Medical Car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5.

[4] H. K. park, “A study on the factor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by industrial axxident”,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2010.

[5] J. H. Kim, Y. S. Kim, H. W. Kim, “ The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the Sense of Loss Scale for Industrially Injured Pati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1, no. 1, pp1-15, 2014.

[6] S. D. park, E. S. kim,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oluntary Turnover Model Among the Employe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50, no. 2, pp133-158, 2007.

[7] Grunnert, B. K. “Smucker, M. R., Weis, J. M., & Rush, m. D., When prolonged exposure fails: Adding an imagery-base cognitive restructuring component in the treatment of industrial accident victims suffering from PTSD”,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vol. 10, pp. 333-346, 2003.

[8] S. K. Park,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Integrated Factors of the Disabled with Industrial injuries”,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1997.

[9] S. K. Park, D. K. Kim,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among with work-related injur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1, no. 3, pp. 150-174, 2006.

[10] M. S. Ko, D. J. Kim, “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es of the Female Disabled on Their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Disability & Empoyment, vol. 24, no. 2, pp. 137-164, 2014.

[11] Medley. M.L.,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vol. 31, no. 4, pp. 448-455, 1976.

[12] Jan, M, Masood, T., “A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among Women” stud. Home Comm. Sci., vol. 2, no. 1, pp. 33-42, 2008.

[13] D. M. Yeum, S. D.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mediated moderating effec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Focused on the job satisfaction and self-esteem”, Disability & Empoyment, vol. 24, no. 1, pp. 139-165, 2014.

[14]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 -sation Insurance, 1st Basic analisis report, 2014.

[15] B. Y. Jeon, S. M. Kwon, B. H. Cho, T. J. Lee,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and Satisfaction of Occupationally Injured peopl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6, no. 2, pp. 199-222, 2011.

[16] B. Y. Jeon, “Impact of the Return to Work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Work-related Disabiliti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17] J. Y. Sim, “Work’s work-life balance and life satisfaction study”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2010.

[18] Y. H. Choi, “ The Correlational Study on Health-promoting Behavior, occupational Life-satis-

faction and Self-esteem of the Blue Color Workers",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6, no. 2, pp192-200, 2003.

[19] C. K. Ha, H. S. Kim, "The Effect of Elderly Job projects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4, pp 393-414. 2009.

[20] J. Y. Song, "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Employment Statu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3.

[21] Kline, P.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York: Guilford Press. 2010.

안 성 아(Seong Ah, Ahn)

2003년 -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terest: Adult and rehabilitation nursing

염동문(Dong Moon, Yeum)

1999년 7월 - 2003년 2월 경남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장

2003년 -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nterest: Research methodology, Community welfare, Informatization with disabilities